

윤성빈, 인사도 안받던 우상 드쿠르스 넘었다



3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휘슬러의 2016~2017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윤성빈이 스타트하고 있다. 2014년 소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러시아의 알렉산더 트레티아코프(1분45초98, 은메달), 미국의 매튜 안토인(1분46초22, 동메달)을 제치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스켈레톤 시즌 첫 월드컵 금 드쿠르스 0.4초 차이 따돌려 평창올림픽 기대감 상승

“전 정말 드쿠르스를 좋아하는데 그 선수는 저한테 인사도 안 해줘요. 제 우상인데 말이죠.”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22)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귀국한 뒤 마르틴스 두쿠르스(32·라트비아)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다.

두쿠르스는 세계 스켈레톤의 절대 강자다. 10년 가까이 세계랭킹 1위다. 윤성빈의 불멘소리를 들은 한국 대표팀의 리처드 브루니 코치는 “아무래도 올림픽 생각이 하다 보니 그렇지 않았느냐”며 타일렀다고 한다.

윤성빈은 지난 시즌을 세계랭킹 2위로 마쳤다. 썰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출신으로 이룬 기적 같은 성과다. 아무리 두쿠르스지만, 턱밑까지 추격한 20대 초반의 젊은 윤성빈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경쟁’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따로 있다.

썰매(스켈레톤·봅슬레이·루지)는 다른 어느 스포츠 종목 이상으로 ‘경기장 적응도’가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켈레톤 선수는 머리가 앞쪽을 향하도록 썰매에 배를 대고 누워 1,000~1,500m의 트랙을 내려온다.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트랙이 익숙한 경쟁자를 당해내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두쿠르스는 2010년 캐나다 밴쿠버,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

픽에서 개최국 선수에 밀려 모두 은메달에 그쳤다. 이리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홈’도 아닌 북미와 유럽 트랙에서 무서운 기량을 과시한 윤성빈이 다가올 리 없다.

4일 캐나다의 휘슬러 경기장. 2016~2017시즌 첫 메이저 경기인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1차 대회가 열렸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윤성빈이었다. 윤성빈은 1차 시기에서 52초84로 1위를 기록한 뒤 2차 시기에서 53초02로 3위에 올랐지만 1, 2차 기록을 합산해 반영한 최종 순위는 1위로 변함없었다. 썰매 종목에서 월드컵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권위 있는 대회다.

소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알렉산더 트레티아코프(러시아)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두쿠르스는 4위에 그쳤다.

윤성빈이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은 올해 2월 5일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월드컵 7차 대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세계 스켈레톤 역사에서 아시아 출신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윤성빈이 유일하다.

지난 시즌 8차례의 월드컵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1개를 수확한 두쿠르스는 올 시즌 첫 대회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스켈레톤은 0.01초 차이로도 순위가 바뀐다. 두쿠르스(1분46초26)는 이번에 윤성빈(1분45초86)보다 0.4초 뒤졌다.

윤성빈은 “스타트할 때 관중이 열광하는 게 정말 좋다”며 “그럴때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서 기록이 단축된다”고 말한다. 한국 관중으로 가득 채워질 평창올림픽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연합뉴스

한국 ‘더퀸즈’ 우승...일본에 7승1무 ‘완벽 설욕’

해외파가 빠져도 한국 여자 골프에 일본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한국 여자 골프가 일본을 꺾고 4개국 투어 대항전 ‘더퀸즈’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한국은 4일 일본 나고야 미요시 골프장(파72·6500야드)에서 1대1 매치 플레이로 치러진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에 7승1무로 압승을 거뒀다.

작년 첫 대회에서 간발의 차이로 일본에 우승을 내줬던 한국은 1년 만에 설욕에 성공했다. 이 대회의 모태가 된 한일 대항전에서는 12년 동안 7승3패2무로 앞선 한국은 다시 한 번 일본에 우위를 입증했다.

전날까지 이들 동안 포볼과 포션 경기에서 승점 12점을 쌓아 승점 11점의 일본과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대결을 벌인 한국은 예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 /연합뉴스

포문은 주장 신지애(28)가 열었다. 오야마 시호(37)와 만연이 대결에서 신지애는 11, 12, 13번, 14번홀 연속 버디로 5홀차 완승을 거뒀다.

신지애의 중거리 버디 퍼트가 잇따라 겁에 떨어지자 오야마는 “못 당하겠다”는 표정으로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장수연은 동점으로 맞서던 16번홀(파3)에서 티샷이 그린 오른쪽 언덕 밑으로 떨어져 위기를 맞았으나 기적같은 리커버리 샷으로 승부의 물꼬를 텄다.

장수연의 승리로 싱글매치 8경기에서 승점이 같으면 전날까지 승점이 앞선 팀이 우승한다는 대회 규정에 따라 우승을 확정 한 뒤에도 한국은 고진영(21)과 조정민(22), 배선우(22)가 차례로 승전고를 울려 완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사랑의 쌀 나누기 타이거즈 연말은 따뜻했네

‘호랑이 군단’이 따뜻한 나눔으로 2016시즌을 마무리했다.

KIA 선수들에게는 3일간의 강행군이였다. 지난 2일 선수협회 총회 참석을 위해 오전 6시 챔피언스필드에 집결해 서울로 향했던 선수들은 3일에는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 4일에는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3일 진행된 일일호프 행사는 많은 팬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행사장에 팬들의 발길이 계속된 가운데 선수들의 애장품 경매 행사에 대한 열기도 높았다. 나지완은 배트와 스파이크를 각각 100만원과 90만원에 판매하며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다. 김주찬은 지방중계 수술로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전화경매를 통해 마음을 보냈다. 김주찬의 배트도 100만원에 낙찰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롯데백화점에서 치러진 사인회와 일

일호프 기념품 판매 코너에도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 ‘선수들과의 식사’와 선수 애장품 경매에 대한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선수단과의 식사에는 윤석민, 나지완, 노수광, 이흥구, 심동섭, 한승혁, 홍건희, 김요령 8명의 선수가 각각 최고액을 써낸 팬과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 수익금은 전액 차영화 코치 돕기에 사용된다.

주장으로 지난 3년을 보낸 이범호는 이번에도 상호회장 자격으로 행사를 이끌었다.

상호회장으로서 마지막 행사를 치른 이범호는 “타이거즈라는 팀에서 3년 동안 주장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힘든 것보다 좋고 보람된 부분이 더 많았다”며 “많은 팬이 찾아주셔서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가 잘 마무리됐다. 모두의 마음이 전해져 차영화 코치님이 쾌



KIA 타이거즈의 홍재호(왼쪽부터), 김현준, 손영민, 서덕원이 산타 자원봉사자와 함께 4일 임동 일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차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일호프를 진행한 선수단은 4일 오전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납회식을 갖고 한 시즌을 돌아본 선수들은 오후에는 사랑의 쌀 4200kg를 전달하기 위해 임동 주민센터에 모였다. 선수들은 이날 조를 나눠 임동 내 소외계층 200가정과 지역아동센터 2곳을 방문, 20kg 들이 쌀 1포대와 방한용품 등을 전달했다.

쌀포대를 짊어진 선수들은 좁은 골목길을 돌고, 계단을 오르며 나눔을 실천했다. 좋은 일에 나서는 선수들을 위해 음료를 건네는 손길도 이어지는 등 ‘동행’을 외치며 한 시즌을 보낸 KIA는 지역주민과의 따뜻한 ‘동행’으로 2016시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제대 후 처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홍재호는 “지난해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정말 좋은 행사인 것 같

다. 좋은 일을 해서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역시 처음 자리를 한 손영민도 “어렵게 지내시는 우리 할머니들을 보니 마음이 좋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KIA 선수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비시즌의 여유를 맞이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FA 보상 선수

삼성, KIA 강한울 지명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강한울(25)이 최형우(33)의 FA(자유계약선수) 보상 선수로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한다.

삼성이 4일 최형우의 보상선수로 강한울을 선택했다. 원광대를 졸업한 강한울은 지난 2014년 2차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우투좌타인 강한울은 김선빈의 군 공백 기간 내야의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2016 시즌에는 104경기에 나와 타율 0.271(298타수 81안타) 27타점 36득점 7도루를 기록했다. 올 시즌 내야진의 부상으로 고전했던 삼성은 새로 출범한 김한수 감독 체제의 내야 강화를 위해 강한울을 선택했다.

강한울은 “내가 삼성으로 이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 막상 현실이 되니 여러 생각이 든다. 3년을 KIA에서 보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다고 하는 시간이다. 나름대로 정도 많이 들었고, 선배들에게도 많이 배우기도 했고 섭섭한 마음이 크다.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해서 삼성에서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가서 적응 잘하고 그리운데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적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